

2. 성인 문해능력 수준



## 우리나라 성인 중, '기본적 읽기·쓰기·셈하기 불가능한 사람' 4.5%(약 200만 명)!

-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'읽기·쓰기·셈하기의 문해 능력'을 측정했는데, 올해 초 조사한 결과(만 18세 이상 성인 10,429명)에 따르면, '문해 능력 수준1(읽기·쓰기·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)\*\*이 4.5%(약 200만 명)였고, '수준 4' 이상(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)'은 80%로 조사되었다.
- 전체적으로 국민적 문해 수준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문해 능력 수준 비교(2014 vs 2017 vs 2020) (%)



\*자료 출처: 교육부 보도자료, '제 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및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', 2021.09.06.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,429명, 면접조사, 2020.10.12.-202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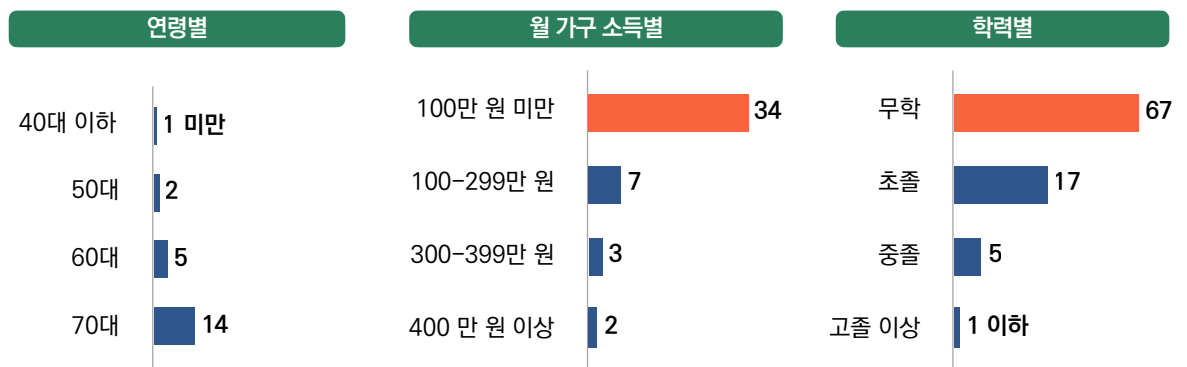
\*\* 문해 능력 수준 기준

구분	수준 정의
수준 1	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, 쓰기,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(초등 1~2학년 학습 필요 수준)
수준 2	기본적인 읽기, 쓰기, 셈하기는 가능하지만,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(초등 3~6학년 학습 필요 수준)
수준 3	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, 복잡한 일상생활에는 미흡한 수준(중학 1~3학년 학습 필요 수준)
수준 4 이상	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(중학 학력 이상 수준)

### ● 기본적 읽기·쓰기·셈하기 어려운 성인, '노년층·저소득층·저학력' 층에서 많아

-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능력은 연령이 높을수록,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, 학력이 낮을수록, 농산어촌에 거주할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학력별 문해능력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(학력별 격차 65%p).
- 교회가 '노년층', '저소득층', '저학력층'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열어주는 등의 봉사 활동 또는 문화 센터가 있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.

[그림] 문해 능력 수준1(읽기·쓰기·셈하기 불가능한 성인) 비율(계층) (%)



\*자료 출처: 교육부 보도자료, '제 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및 문해의 달 선포식 개최', 2021.09.06.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,429명, 면접조사, 2020.10.12.-2021.

\*\* 문해 능력 수준 기준